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앞산 산 밑에 농막을 짓고 사는 사촌 동생 복두가 서 울에서 가져온 누룽지 가져가라고 전화 왔다. 복두는 나보다 한 살 아래,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같 은 반이었다. 서울에서 살다가 몇 해 전 앞산 밭에 농막 을 짓고 이따금 와서 기거한다. 밤이 되어 앞산 밑 강 언덕에 불이 켜지면 산이 눈을 뜨는 것 같다. 이따금 배 호의 ‘돌아가는 삼각지’를 크게 틀어 놓는다. 아침밥 먹었는데, 앞집에서 북국 끓여 놓았다고 먹으 러 오란다. 북국 먹고 있는데, 복두가 누룽지 가져가라 고 또 전화한다. 강을 건너겠다. 눈이 날린다. 눈발이 몇 개 얼굴에 차다. 검정비닐 봉지에 든 누룽지를 들고 타박타박 강을 건너왔다. 오리들이 강에서 놀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며칠 사이에 청둥오리들이 많이도 불어났다. 금 새 100마리도 더 떼를 지어 하루 종일 마을 앞 강에서 먹 이를 찾아 먹고 바위 위에 앉아 머리를 날개 위에 꼬아 엮어 놓고 한 발로 서서 쉰다. 오리들이 먹이를 찾기 위 해 머리를 강물 속에 처박고 공명어와 노란 발을 하공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믿음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신성의 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 도가(道家)에서는 신성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 이다. 신성이란 믿음과 정성의 합성어로서 ‘믿는 정 성’, ‘믿음에 대한 정성’, ‘믿고 바치는 정성’, ‘정성을 다하여 믿는 마음’ 등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원불교에서 는 신(信)·분(分)·의(疑)·성(誠)의 합성어요 준말로 서의 신성이다. 이 마음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두를 해결하 는 원동력’이 되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라 했다. 만 일 신성이 부실하면 법을 담아가지 못하고, 의두를 해 결하지 못하고, 계율을 지키지도 못하는 결과를 빚는 다. 이를 더 부연하자면 원불교 교리는 인생의 요도(要道)와 공부의 요도, 두 맥락이 있는데 이중 ‘공부의 요 도’에 삼학(三學)과 팔조(八條)가 있다. 삼학이란 정 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공부를 말하고, 팔조란 진 행사조(進行四條) 진행해야 할 네 가지)와 사연사조(捨緣四條) 버려야 할 네 가지)를 말한다.

기 고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현 대한민국의료 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구급 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해마다 길 위에서 국민이 죽어 가고 있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장관은 “광 역 상황실을 만들어 이송을 조정하겠다”, “순환 당직제 를 도입하겠다”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이 “과거에는 병원이 거부를 뚫었는데 지금은 ‘역량이 안 된다’며 거부한다”라고 묻는데, 이미 실패 가 증명된 ‘컨트롤타워’ 타령이라니. 응급실 뺑뺑이는 전화 연결이 안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를 받 아줄 ‘공간’과 ‘인사’가 전멸했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애써 외면하는,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 실’을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말하 지 못할까? 대통령이,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했던, 아니 반 드시 들었어야만 했던 얘기를 끝내 입에 올리지 못하는 걸 보며 참 답답했다. 대통령은 “왜 환자를 받아 안아주느냐”라고 사태의 원 인을 묻는데, 장관은 원인에 대한 답변 없이 그냥 환자 를 잘 배분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환자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총량’의 붕괴 에서 기인한다. 받아줄 곳이 없는데 아무리 정교한 배

여기는 딴 나라 같다

속에 베통거리리는 모습은 매우 웃기고 아주 평화로워 보 인다. 오리는 힘들겠지만, 나는 그렇다. 강물 속에는 봄 여 름 가을까지 자란 다슬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오리는 다슬기를 까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책을 보고 있는데(나는 요즘 유발 하라리의 ‘21세기 스물한 가지 제언’을 읽고 ‘넥서스’를 읽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의 저서인 ‘사피엔스’와 ‘호 모테우스’를 다시 읽어야겠다고 버틴다.) 앞집에서 또 방어 회 먹자고 해서 양껏 배부르게 먹었다. 이들 전에 김창 마늘을 줬다. 오늘은 파를 다듬었다. 해는 지고 어두운데 맑이 순창 읍내로 치킨 사라 가자 고 한다. 날이 추웠다. 달리는 차창에 눈발이 날아왔 다. 닭집 앞에 차를 세우고 치킨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닭집 홀에 앉아 맥주를 마신다. 퇴근 후 사람들이 한가 하게 술을 마시는 풍경을 정말 오랜만에 보았다. 함께 평화롭고 서로 다정하고 여럿이 정다워 보인다. 읍내, 그러면 어쩐지 정답다. 정다는 모슴들을 치킨 이 나올 때까지 차 안에서 바라보았다. 무어라 심각하 게 말하고, 또 허리를 뒤로 제끼고 웃고, 손뼉을 치며 모두 웃는다. 삶의 내일이 불안하고, 또 기다려진다. 큰 도시 삶같이 어마어마한 희망은 없을 것 같은 간소한 읍내의 하루가 이렇게 눈발 속에 잠겨 있다. 집이 있고, 집에는 식구들이 기다린다. 그것 또한 삶 의, 하루의 안심이다.

신성(信誠)에 대하여

이 진행사조는 신(信)·분(分)·의(疑)·성(誠), 즉 믿 음과 분발과 의심과 정성이다. 이 진행사조는 삼학 공 부를 진행시키는 필수 요건으로서의 네 가지 길이다. 이 네 가지가 각각 다른 것 같으나 일맥상통하는 원리 를 가지고 있다. 진리의 실상이나 그 속성을 알고, 또한 주세불과 그 교법을 알고 나면 진리와 주세불과 그 교 법에 대한 믿음이 서지 않을 수 없다. 깊은 믿음이 확립 되면 성불제종(成佛濟衆), 즉 안으로 자기를 완성시키 고 밖으로 고해 생령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발을 아니 할 수 없고, 그 분발에 이어 회의(懷疑)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성불을 위해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고 해 생령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화두가 절실 하게 부각되고 그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 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깊은 믿음에서 깊은 분발이 나오고, 깊은 분발에서 깊은 의심이 나오며, 깊은 의심에서 깊은 정성이 나와 서 진급과 깨달음과 성공과 결실을 안겨다 준다. 이러 한 신·분·의·성의 네 가지 합성어요 준말이 ‘신성’이다. 그러므로 도가의 생명은 신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도가에 몸담고 있을지라도 신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도가의 제목으로서는 생명을 잃는다. 도가 에서 추구하는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도가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먼저 그의 신성을 본다”고 하고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 네지고 공을 이루나,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지

닭집 여자 주인이 닭을 가지고 온다. 얼른 차창을 열 고 받았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치킨집 여자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 “어머! 시인, 그분 아니세요” 한다. 내가 “네 맞다”고 했다. 좋아하셨다. 딸이 운전하면서 아빠 가 그분이구나 했다. 웃었다. 눈발이 아까보다 세차졌 다. 순창에서 나는 중학교고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때 우 리 모두 가난하고 가난하였다. 자취하는 나를 도와준 친구가 둘 있었다. 중해와 운행이다. 중해는 어머니와 누님하고 살았다. 추운 겨울 자기 집에 데려가 이불 속 에 묻어 놓은 따뜻한 밥을 주었고, 운행이는 시계 집 아 들이었는데 중학교 내내 소풍 때마다 도시락을 싸 왔 다. 운행이가 어느 날 자기 집에 나를 데려갔다. 고운 얼굴의 운행이 어머니님 이 나더러 “니가, 옹탁이구나” 하 며 나를 바라보며 웃으셨다. 나의 생활권은 지금도 순창이다. 시장을 보러, 마트 에 무엇인가를 사라 가고, 찻집도 외식도 병원도 순창 으로 간다. 내 삶의 일상은 모두 순창으로 해결된다. 집 에 일이 없는 날은 아내는 책을 보러 순창에 간다. 거리 를 다니다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어쩐지 낯설지 않은 얼 굴들이 스친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살며 눈에 익었던 그 이들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어쩌다 스친 그 때 읍내 에 살던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후손들일 수도 있을 것 이다. 내가 사는 이 작은 고을은 일상은 딴 나라 같다. 닭튀김은 맛이 있다. 격동의 1년이 가고 있다.

社 說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속도전이 부른 참사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신 축 공사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공 기(공사 기한)를 맞추기 위한 속도전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리회사가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 건설본부에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부진한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이른바 ‘돌관작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감리 측은 작업시간 연장 및 휴일작업 실시, 마감공사시 병행공정 동시 투입 등 을 대책으로 제시했는데 촉박한 공기를 맞추려고 실제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짧은 시간에 연속 처리했다. 공동 시공사 부도로 현장대리인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했고 미숙련 인력을 투입한 정도도 드러났다. 붕괴 참사의 원인이라 경찰 수사로 최 종 확인되었지만 무리한 속도전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전문가들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무

리한 작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속도 전을 부추겼다는 데 있다. 광주시 종합건 설본부는 한 달 사이 다섯 차례나 준공기 한을 지켜달라고 독촉했는데 읍인 시공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 을 것이다. 공공발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라 충격이 더 크다.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결 정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흔히 탁상행정 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참사도 탁상행정 이 한 원인이다. 광주시나 광주시 종합건 설본부에서 말치 않은 현장에서 참사가 발 생했다. 공동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 지 연 등이 빚어졌는데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 가 더 꼼꼼하게 점검했다라면 어땠을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이번 참사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붕괴 사고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더 이상 있어 서는 안 될 참사를 예방하는 길이다.

전남 국립의대 품고 통합하는 목포대·순천대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으로 탄생하게 될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점이 윤곽을 드러 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두 대 학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 국립의대 개교 목표를 2027년 3월로 잡고 정원을 100명 이상 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 다. 정부 핵심 관계자의 공개적인 발언인 만큼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교육부 는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으 로 밝혀왔는데 김 실장이 목포대와 순천 대 총장과와 회동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 기와 정원 규모를 언급해 지역사회가 고 무대 있다. 전남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자 고령화가 심해 필수·공공 의료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곳이 다. 이런 탓에 전남 국립의대 설립도 개별 로 의대 유치를 해온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생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대학을 통합하 기로 하고 공동 유치가 나서면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다만 개교 시기 와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던 차에 정부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 로 입장을 밝히기 기대감을 갖게 했다. 다만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료인력수 급추계위원회가 1차 관문이다. 내년 1월 로 예정돼 있는 추계위를 통과하면 2027 년 의대 개교가 현실화 된다. 두 대학의 통합은 이미 막바지에 와 있다. 최근 통합 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교육부 고 있고 빠르던 이달 말까지 교육부의 통 합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은 단순히 ‘한 지 붕 두 가족’의 의미 이상이다. 전남권 국 립의대를 품고 출범하는 만큼 거점 국립 대로서 위상도 커진다.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기능 을 갖춘 대학병원이 들어서게 돼 필수·공 공 의료 강화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 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야 한다.

無 等 鼓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다. 아름다 운 작별은 어렵다. 보내는 이와 떠나는 이 의 마음이 통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그 ‘때’를 잡는 게 어렵다. 뜨거운 2025시즌을 달렸던 광주FC가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초보 감독으로 시 작해 많은 구단이 탐내는 지도자로 우뚝 선 이정호 감독과의 작별. 떠나보내야 하 는 광주FC 입장에서선 진한 미련이 남는 다. 이정호 감독은 ‘정효불’로 야구 도시 광주에 축구 바람을 일으킨 특별한 존재 다. 기존의 틀을 깨는 거 침 없는 언행으로 화제 를 몰고 다니는 인물으 기도 하다. ‘최고의 예우 를 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붙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떠나야 하는 이정호 감독의 마 음도 알 것 같다. 감독 첫 해 최다 승점으 로 최단기간 K리그2 우승을 이뤄냈고 꿈 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시아챔피언스리 그 8강전도 연출했다. 지난해 코리아컵 첫 4강에 이어 올해는 준우승이라는 결과 도 만들었다. 선수들의 출부상과 이탈에 FIFA 연대 기여금 미납, 재정건전화 위 반 등 행정적인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

서 만든 성과다. 광주FC의 첫 기록을 연달아 쓰면서 정 점에 선 이정호 감독. 그는 승리한 날에도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 만을 이야기하던 지도자다. 성장과 도전 을 강조하던 그에게 광주FC는 좋은 기억 으로 남기고 싶은 팀일 것이다. 이정호 감 독에게는 떠나기 가장 좋은 ‘때’다. 이미 작별 사인을 내기도 했었다. 어떤 결과에도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던 그는 홈 폐막전에서는 말을 아꼈다. ‘코리아컵 우승’ 목표가 남아 있는 만큼 모든 걸 끝낸 뒤 팬들에게 인사를 하 고 싶다면 그의 이야기. 우승컵을 앞에 놓고 4년을 돌아보면서 작 별을 고하고 싶었는지도 모르다. 아쉽게도 그는 결승전에서 퇴장을 당했 다. 퇴장 선수와 지도자는 현장에서 공식 인터뷰를 할 수 없다. 예상 이상으로 치열 했던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한 감독의 전 술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팬 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놓쳤다. 광주FC와 이정호 감독의 빛났던 동행이 박수 속에서 마무리되길 반 단. /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wool@

광주FC와 이정호

대통령의 ‘응급실 뺑뺑이’ 대책은 무엇인가

분 시스템을 도입한들 무슨 소용일까? 그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 후 진료 인프라가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응급실과 배 후 진료과에 의사가 없는 것은 환자를 받았다가 발생할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의사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한다. 만약 실패하면 ‘죄인’으로 만든다. 과거 필자가 수련받을 때 는 의료진들은 “일단 환자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야전병원식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환자나 보 호자도 의사의 ‘선한 의지’를 믿었다. 그러나 지금 의사 들은 ‘살릴 확률이 100%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라는 생존 본능으로 무장했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 까? 사법 리스크다. 한국에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확 률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한다. 1%의 사 망 확률이 있는 위급 환자를 수술하다 결과가 나쁘면 검찰과 법원은 “왜 그 1%를 막지 못했느냐”라며 의사 를 형사 법정에 세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 의료진이 포승줄 에 묶이는 장면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 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환자를 받았다가 소 송을 당하는 것보다 안 받고 차라리 ‘과대료’를 내겠다 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 관료들이 이걸 모를까? 다 안다. 그런데 ‘광역 상황실’이 무슨 소용인가? 상황실 직원이 전화하면 없던 수술방도 생기고 퇴근한 의사가 돌아오나? 응급실은 병원에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국민은 응 급실에 의사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다. 착각이다. 응급의

학과 의사는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일 뿐, 터진 뇌혈관 을 있고 막힌 심장을 뚫는 건 배후 진료를 맡은 흉부외 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의사이다. 지금의 뺑뺑이는 실 상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배후 진료 의사가 없어서 발생한다. 지방은 사정이 더욱 심각다. 정원을 늘리거나 지방에 공공의대를 만들면 해결될 까? ‘생명값’ 보다 ‘미용값’을 더 쳐주는 기형적인 수가 구조를 방치한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위험을 피해 미용·성형 시장으로 흘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 응급실 수용 의무화를 강제하자고 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 강제한다고 해결될까? 이제 미 국 텍사스주처럼 ‘고의나 중대한 과실(술 취한 상태 등)’이 아니면 응급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면책이나”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응급 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 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거나 국가가 보상하는(응급의료를 개인의 희생에 맡기지 않는) 사 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는 신의 영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도 환자는 사망할 수 있다. 그 결과에 소용으로 대 응한다면 결국 환자 결에서 위험을 감수할 의사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다. 대통령의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해법은 올바른 정책을 시행할 의 지와 결단이다. 이제 미봉책은 걸어치우고 해법이 무 엇인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